전국 최대 규모 퇴행성 질환 전문병원

노인건강타운에 들어선다

광주시·전남대병원, 복지부 공모사업 유치 확정

전국 최대 규모의 퇴행성질환전문병원이 광주에 들어서게 돼 광주시가 추진 중인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공모사업에서 시와 전남대병원이 응모한 퇴행성질환전문병원의 광주 유치가 확정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에 들어서게 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퇴행성질환전문병원과 고령친화제품체험관, 시립치매병원을 건립, 노인복지시설과 연계한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가운데 지역 최초의 실버용품 종합전시관이 될 고령친화제품체험관은 지난 9월 지식경제부 공모에서 광주 건립이 확정됐고, 이번에 퇴행성질환전문병원까지 유치함으로써 노인의료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가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

시는 오는 2011년까지 국비 350억원과 시비 100억원, 전남대병원 100억원 등 모두 560억원을 들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내 3만3천㎡부지에 180병상 규모의 퇴행성질환전문병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병원 건립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0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류마티스 및 관절염센터가 건립되면 그동안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했던 환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관절염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방국립대병원 특화육성사업'으로 추진돼왔으나 이명박 정부들어 전면 백지화, 6개월만에 선정기준과 평가방법 등을 다시 만들어 공모가 재추진됐다.

이번 공모에서 류마티스·관절염 분야는 전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이 응모해 경쟁을 벌였으나 전남대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광주시는 퇴행성관절염 분야의 우수한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고 건립예정지의 접근성과 인구유동성, 주변환경 등 입지여건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은 광주과학기술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 2011년까지 120억원(국비 50억원)을 투입, 1만3천250㎡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짓게 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광주시도시공사·문진위 예산 관리 '허점'

광주시 종합감사…35건 적발 시정 조치

광주시 도시공사가 불필요한 공사비 수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데다 미집행 예산이 400억원에 달하는 등 공사·예산 관리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는 3일 광주시 도시공사와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도시공사 27건, 문진위 8건의 업무처리 부적정·미흡 사례를 적발해 각각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사부문 감사결과 도시공사는 평동 2차산업단지(2,3공구) 조성과정에서 불필요한 장애인용 점자블록 60a의 설치를 위해 예산 3억4천500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빛고을 노인타운 골프장 조성공사에서도 당초 설계와 달리 공사비 1억7천여만원을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실내수영장, 양궁장 등 시설보수 과정에서 추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액에 대한 별도 산정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해 9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특히 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모두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했으면서도 무려 416억원(본 예산대비 8.5%)의 미집행 예산이 발생, 허술한 예산집행으로 주의조치를 받았다.

인사·경영부문에서도 도시공사는 지난 2006년 '도시공사 장기경영계획 용역'을 발주해 성과물로 책자 100부를 납품받은 뒤 각 부서에 배포하지 않고 사장시켜 용역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문진위는 지난 2006년 만봉 김산호 역사화전, 2007년 세계여성평화포럼 지원을 위해 모두 2억1천여만원의 민간기부금을 받은 뒤 수입·지출결의서 등 예산집행 절차를 생략, 통장거래만으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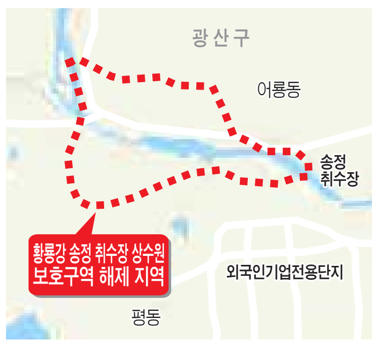
또 2008년 광주문화예술지표조사가 기초통계 자료를 취합하는 사업으로 인력 1~2명으로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3천200만원 상당의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해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지적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음지 밝힌 자랑스런 얼굴들 광주시내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펴온 자원봉사자 5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광주시와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3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황룡강 송정 취수장·장성 남면 취수장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황룡강 송정취수장과 장성 남면취수장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3.15㎢)이 연내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광주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동복호와 주암호의 상수원 공급이 가능해져 황룡강 송정 취·정수장 주변 2.97㎢의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1976년 송정읍민의 식수 공급을 위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2년간 건축물 신축과 증·개축, 벌채,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약을 받아왔다.

시는 또 장성군 남면의 남면 취수장도 12월께 폐쇄하고 상수원 보호기능이 상실된 황룡 상수원 보호구역(0.18㎢)을 해제할 방침이다.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기본계획 변경고시에 이어 영산강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후식기자 who@

금남로 근린공원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작 국무총리상

광주시 동구 금남로 근린공원이 '2008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는 전국 지자체와 법인, 단체 등 44곳이 접수해 1차 기술평가와 현장평가 등 2개월여의 심사를 거쳐 금남로 근린공원 등 전국 5곳이 최종 수상지로 선정됐다.

금남로근린공원은 도심 중심상권에 위치한 옛 한국은행 부지를 시민 휴식과 친환경 녹지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도심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상은 오는 14일 대구 엑스코에서 전시회와 함께 진행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서구 '365 민원봉사실'

서비스 개선 최우수

광주시 서구 '365일 민원봉사실'이 행정안전부의 '전국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최우수 개선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3월 상무지구에 문을 연 '365일 민원봉사실'은 연중무휴(오전 9시~밤 10시)로 운영되며 각종 증명서 발급뿐 만 아니라 금융업무와 무료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특히 금융·법률·세무·노동기관과 연계해 동시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전주언 서구청장은 "민원 증가 추이를 고려해 24시간 업무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

지자체 경영평가

동구 경쟁력 전국 6위

광주시 동구(청장 유태명)가 전국 자치단체 경영평가에서 경쟁력이 뛰어난 10대 자치단체에 선정됐다.

3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따르면 경영기반과 활동·성과 등 3개 부분 63개 지표로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평가한 결과 광주시 동구가 서울 강남구·서초구·종로구·중구, 부산 중구에 이어 전국 6위를 차지했다.

이번 경쟁력조사는 전국통계연감 ▲지방재정연감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행정자치부 자체 통계자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안현주기자 ahj@